



3면

"깨어있는 시민의 힘, 더 나은 세상 원동력"

전주매일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음 2월 19일) 제297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지방하천 정비 올해 2192억 투입

전북도, 6월 말까지 총사업비 60%대 신속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건설산업 활력 증진 도모

전북도가 올해 2,192억원을 투입해 하천기능 향상을 통한 홍수 대응능력을 높이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지난 2월에 조기 착수에 들어가 6월 말까지 총사업비의 60%인 733억 원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산업 활력을 증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올해 추진하는 하천 분야 주요 사업은 ▲지방하천 정비 57지구(1,221억 원), ▲하천 기본계획 수립 5지구(18억 원), ▲하천 관련 유지·관리(120억 원), ▲지방하천 재해 복구(833억 원) 등이다.

지방하천 정비는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 주위 제방·교량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도(19지구, 71km 238억 원)와 시·군(38지구, 181km 983억 원)이 각각 시행 중이다.

이 가운데 미제천 외 9지구는 신규 착공하고, 고부천 외 4지구는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둔남천(4.8km), 성남천(1.1km)을 4월초 발주해 2023년 12월 설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지방하천의 퇴적토 준설 시설물 보수·보강, 안전 점검, 하도 정비 등 유지·관리 사업도 신속히 추진해 6월 우기 이전에 완료할 방침



춘분 앞두고 활짝 핀 유채꽃밭에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춘분(春分) 절기를 하루 앞둔 20일 오후 어느 동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활짝 핀 유채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이다.

특히, 2020년~2021년 발생한 호우 피해에 따른 기능복원사업 등 추진 중인 8개 지방하천 재해 복구사업 6건도 재해에 차질 없이 6월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또한,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둔남천(4.8km), 성남천(1.1km)을 4월초 발주해 2023년 12월 설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지방하천의 퇴적토 준설 시설물 보수·보강, 안전 점검, 하도 정비 등 유지·관리 사업도 신속히 추진해 6월 우기 이전에 완료할 방침

사업이 완료되면, 홍수피해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산 신속 집행과 함께, 신규사업 추진 시 지역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192억원을 투입해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인건비 및 사업비

등 일자리 창출로 3,223명의 고용효과도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 집중호우, 태풍 등 재해로부터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며 "예산 조기집행과 신규 사업 발주를 통해 지역 건설경기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항바이러스 치료기기 감기환자 대상 임상시험

전북대 정환정·홍용태 교수팀이 개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바이 바이'가 일조"

전북대학교 정환정 교수 (의대 핵의학 교실)는 지난해 개발한 집적(集積) 광에너지 근접 조사기술을 적용한 호흡기 질환 치료



정환정 교수



홍용태 교수

써 일어난다는 것을 밝힌 연구 결과를 작년 9월 광생물학 분야 SCI 국제저널인 'Photostimulatory & Photobiology'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전북대병원 이비인후과 홍용태 교수가 책임을 맡아 진행된다. 감기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계획에 대해

이비인후과 홍용태 교수가 책임을 맡아 진행된다. 감기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계획에 대해 식약처와 전북대병원 임상시험윤리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17일부터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중이다.

이에 따르면 이 기술은 코로나19 대유행과 맞물려 이에 대한 치료 기술 확보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됐다. 연구 결과 특정 광에너지가 증식하는 바이러스를 억제시킨다는 것을 처음 확인하고 이를 응용한 치료기기를 개발했으나, 정작

코로나 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에 가로 막혀 효과의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연구팀은 코로나 감염 환자 대신 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항바이러스 효과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2020년 1월부터 연구를 시작, 특정 광원이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인 독감 바이러스 증식 억제에도 효과가 있고 항바이러스 기전은 숙주 세포가 바이러스의 증식에 이용

당하는 여러 기전을 억제함으로써

했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치료기기를 개발 지난해 11월 전기안전시험과 생물학적 안전 시험을 완료해 의뢰기기 안전성 검증을 통과해 환자에게 적용 할 바이러스 효과를 검증하는 임상적 용이 시작했다.

연구팀은 "국내에서 이 기술의 실용화 과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비슷한 개념의 의뢰기기 이미 임상 3상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라며 "미국의 임상시험 진행도 과학발전의 동시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안타깝다"라고 했다.

이어 연구팀은 "감기 환자 대상 1차 임상시험은 적은 수를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 전담병원이나 자가격리 확진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되는데 관계 부처의 지원이 이어진다면 확진자 치료에 바이 바이(Bye-Vi)가 분명히 일조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기 환자 대상의 임상시험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전북대학교병원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063-259-3466)으로 문의하거나 센터에 직접 찾아오면 참여할 수 있다.

정환정 기자

'오늘부터 사적모임 8명으로 확대'

도, 정부 방침 따라 내달 3일까지 거리두기 조정방안 시행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11시까지 제한은 현행 유지

전북도가 정부 방침에 따라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8명까지로 조정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정부는 3월 20일 종료되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 사적모임 인원을 6인에서 8인까지 가능하는 내용으로 소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현재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 급증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일일

확진자 수가 60만명 이상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위중증 환자도 1,000명을 초과해 지속 증가 중이며, 사망자도 일 400명을 초과하기도 했다.

또한, 전문가 신속형원검사 양성 인정, 학교 내 감염 증가 등에 따라, 확진자 규모가 정부 예상치를 벗어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이다.

방역·의료 전문가 언론, 학부모 등

에서는 거리두기를 완화하는데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되고, 확진자 동거인도 격리면제가 되면서 거리두기의 정착성과 수용성도 저하되고 있어 자영업·소상공인 등의 불만 제기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및 소상공인, 중앙부처, 지자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향후에는 정점 이후 유행 축소, 의료체계 여러 등을 확인하면서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 거리두기 완

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도 연일 일일 확진자가 1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고, 누적 감염자도 2만명을 넘어 도내 인구의 13%가 넘는 인원이 확진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 방침에 따라 거리두기 내용을 소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다만, 도는 봄 개화철을 맞아 이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심리적 방역이 이뤄지지 않도록 방역수칙 준수 홍보 및 점검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자가격리자 관리 앱 폐지 등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에서 무단 외출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경찰청과 하리안을 구축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필수'...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세요.



전주매일 캠페인